

창녕 부흥 양돈영농조합법인 화재사건

김 용 대 대표
(부흥 양돈영농조합법인)

1. 화재 발생 개요

가. 발생일시

- 1997. 10. 7 오후 9시 20분경 발견
- 발견후 10분 이내에 소방차 5내 긴급 출동
- 출동시 410평 거의 전소 상태였음

나. 발생지

분만사 1동으로 H빔 샌드위치 판넬 건축물로 44복의 6방으로 구분되어 분만사 방 칸막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다. 발생개요

분만사 칸막이 형태는 5단 브로커 조작후 50T 갈바륨으로 친정까지 마감 처리됨.

이날 화재는 지붕 흡입창(알루미늄 샷시에 유리창문)이 전체가 동시에 열리고 닫히는 상태에서 방과 방사이 부분에 절단하여 로라 부착을 위하여 알루미늄 샷시 고정대를 쇠파스로 절단하지 않고 용접봉으로 절단하여 알루미늄 잔재물이 샌드위치 판넬에 부착되어 6시경 화재가 발화되었으며 작업완료 시간이 6시경으로 약간 어둠이 있

는 상태에 확인되지 않고 작업자가 철수하였고 6시~9시경까지 현장에 근무인원이 자리를 비워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410평 건물이 전소되었음.

라. 발생피해 금액

- 건축피해 금액(410평) 649,522천원
- 가축피해 모돈 200두, 자돈 800두 148,000천원, 계 797,522천원

2. 화재 발생에 따른 손실 · 대책 · 방안

가. 손실

모돈 200두의 폐사는 6개월이상 매월 40두 분만을 지연시키고 자돈 800두 폐사는 출하를 2개월 중단시키게 됨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손실이 200,000천원 정도. 미보험으로 인하여 전체가 손실임.

나. 대책

건물 및 돼지에 대한 화재 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며 용접 및 기타 작업시(특히 분만사)에는

작업자가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후에는 관리자가 필히 확인하고 절단 부착시 사용 기구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특히 공동 관리 단지는 야간 순찰업무를 강화하여야 하며 별도 화재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 됨. 보수 작업시에는 관리자가 필히 감독하여야 하며 화재는 아주 미미한 부분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절감하였으며 겨울철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열풍기·보온등·보온매트 등 전기 부분에 더욱더 점검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다.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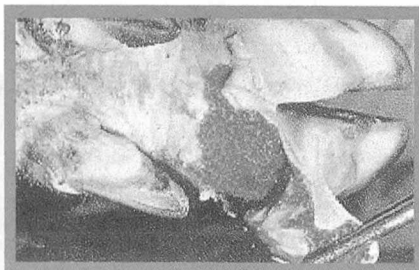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단지뿐 아니라 대규모 사육농가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와 정부 지원없이 자력으로 희생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재해 목적 특수 양축자금은 피해금액의 50%, 농가 1호당 최고 1억, 1년 상환 6개월 연장 가능. 금리 년 5%로 보조 부분은 없고 용자는 건축 및 내부시설 보수를 하고나면 곧바로 상환이 도래됨으로 돼지 1회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상환은 양돈업에 맞지않는 양축자금 비정리로 재해농가를 위한 양축자금은 피해금액 100%(보조 50%, 용자 50%) 용자조건을 시설자금과 같이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해야만이 특히 양돈업은 희생이 가능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흥 양돈단지 화재 발생으로 저희 단지원 70명은 한번 더 확인 및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양돈 가족 여러분은 저희들의 사례를 거울삼아 자기 재산은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養豚**

본지캠페인



**“대만 돼지 구제역 발생
‘강건너 불’이 아닙니다”**